

문헌정보학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지원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생태계 특성 규명*

Characterizing the Research Ecosyste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rough an Analysis of Funded Research Articles

윤정원 (JungWon Yoon)**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비가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연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논문 7,456편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연구비 지원 논문(796편)과 일반 논문(6,660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시기별 논문 수, 저자 수, 참고문헌 수, 인용 횟수, 학술지 분포, 주제 분야, 그리고 저자 키워드의 출현 양상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비 지원 논문은 일반 논문에 비해 공동연구가 활발하고, 참고문헌 수와 인용 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록관리 및 아카이브 분야로의 주제 확장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시기별로는 정보 불평등, 지역 기반 기록학, 데이터 기반 분석 등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두드러졌다. 반면 일반 논문은 도서관 운영, 서비스, 독서교육 등 전통적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비가 학문 내 주제 선택과 연구 방법론, 학술 커뮤니케이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비가 학문적 다양성과 연구자의 자율성, 그리고 학술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러한 이해가 학문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임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rticles supported by research funding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a total of 7,456 LIS articles were examined, including 796 funded paper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6,660 non-funded papers. The analysis focused on annual publication trends, including the number of authors, references, and citations, as well as the distribution of journals, subject areas, and author keywords. The results show that funded papers tend to have more co-authors, include more references, and receive higher citation counts than non-funded papers, while also exhibiting a gradual thematic expansion toward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al studies. Over time, funded research has focused on themes such as information inequality, community-based archiving, and data-driven analysis. In contrast, unfunded papers have continued to focus on traditional topics such as library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and reading edu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search funding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opic selection,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overall structure of scholarly communication.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how research funding affects academic diversity, researcher autonomy, and scholarly communication structures, emphasizing that such understanding is essential for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al and cultural foundations that support the advancement of scholarly communication.

키워드: 연구비, 문헌정보학, 학술 커뮤니케이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개방형 연구 정보
research fu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larly communication, Korea Citation Index, open research information

* 이 논문은 202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yoon@jbnu.ac.kr)

■ 논문접수일자: 2025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2025년 12월 2일 ■ 게재확정일자: 2025년 12월 8일
■ 정보관리학회지, 42(4), 183-200,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4.183>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연구비 지원이 학술 성과에 미치는 특성과 영향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연구비 투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 생산성, 인용기반 영향력, 협업 정도 등의 계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비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다수 있다(Yoon et al., 2025). 이들은 연구비 지원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비 투자와 연구 결과물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과 인용기반 영향력 지표는 연구비 수혜 과제 선정과 연구 결과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비 효과를 단순히 논문 수, 인용 수 등 계량적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한계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는 연구비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 방법론 선택, 연구자 간 협업의 방식, 논문 투고 학술지 선택, 출판모델 등 전반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Yoon et al., 2025). 예를 들면, 연구비 확보에 대한 압박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자금 제공 기관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주제와 방법론에 집중하게 만들고, 탐색적이거나 비주류적인 연구 주제 선정을 저해할 수 있다(Shibayama & Baba, 2015). 또 다른 예로, 연구비 정책이 학술지 출판 환경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공적 연구비를 받은 연구결과물의 오픈 액세스 출판물 의무화한 미국의 Nelson Memo와 유럽의 Plan

S의 영향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오픈 액세스 의무 정책은 단순히 연구 결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들의 출판 전략, 학술지 선택, 출판 비용 부담 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학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비 정책이 학술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국내의 연구비 관련 선행연구는 성과 중심, 논문 수 및 인용 수 중심의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비가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른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 및 학술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의 수, 인용 횟수, 참고 문헌 수, 공저자 수와 함께, 연구비 지원 논문의 주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비 지원 연구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비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향후 연구 아젠다 및 연구비 정책에서 검토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사용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중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로 출판된 학술논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학문 전분야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대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¹⁾ 한국

1) 한국연구재단 기관소개. <https://www.nrf.re.kr/page/99?menuNo=99>

연구재단 연구비는 문헌정보학 연구비의 14%를 차지하고 있다(장연미, 이재운, 2024). 연구비 지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기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연구비지원 정책 및 현황에 따른 문헌정보학 학술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본 데이터셋을 선택하였다.

2. 관련 연구

연구비가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에 집중되어 왔으며, 연구비 수혜 여부와 높은 연구 생산성, 인용 영향력, 그리고 협업 수준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Yoon et al., 2025). Corsini와 Pezzoni (2023)는 프랑스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인용 수를 기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연구비 수혜 논문이 비수혜 논문보다 더 많은 인용을 받음이 보고되었다(Ali & Nazim, 2023). 공동연구 측면에서도,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의 연구팀 규모가 더 크고, 다학제적인 성격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조사되었다(Álvarez-Bornstein & Bordons, 2021). 특히 연구비 지원을 여러 기관에서 받은 경우, 학제 간 협력이 더욱 용이해지며 연구의 확산력과 학문적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조사되었다(Ross-Hellauer et al., 2020; Sun et al., 2021).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계량적 성과 지표들

넘어서, 연구비가 연구 과정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고 있다. 이들은 연구비 성과 평가의 방법론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연구비 수혜 논문이 비수혜 논문보다 인용 수가 높은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현상이 실제 연구 질의 향상을 반영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인용 기반 지표는 실제 연구의 내재적 질보다는 연구비 수혜 과정에서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연구 평가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인용 중심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Coccia, 2022; Thelwall et al., 2023). 구체적으로 Thelwall et al.(2023)은 연구비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단순한 성과 중심 접근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연구비가 연구 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18개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18개 차원은 크게 연구비 종류, 연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비 기록의 세 가지 범주로 설명되었다. 첫째, 연구비의 종류에 있어서는 특정 주제 중심의 공모 과제부터 연구자 자유주제형 과제, 단기 소규모 연구부터 장기 대형 연구 과제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인건비, 참여율, 장비 및 공간 지원 등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둘째, 연구비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요소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연구 주제 선정, 연구 설계, 공동연구의 범위, 연구팀 구성 및 역할 분담, 결과물 유형과 공개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연구비 지원 없이도 수행될 수 있었던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를 구분함으로써, 연구비가 연구자들의

의사결정과 연구 수행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비 정보 기록(메타데이터)에 있어서, 연구비 수혜 여부가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문서화되는 것은 아니며, 암묵적 내부 자원 활용이나 비공식적 협력 등을 통한 연구지원 사례도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인용 기반 평가 방식이나 공개된 연구비 데이터에 의존한 분석이 왜곡된 결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Thelwall et al.(2023)은 다차원적인 연구비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비가 학술 지식 생산의 우선순위와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

연구비 지원제도가 연구 주제 선택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문적 다양성 저해 및 창의적, 혁신적 연구의 위축, 실패 가능성이 있는 연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Yoon et al., 2025). 연구 방향, 우선순위, 협력 조건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지시형 또는 주제형 연구비(Directive or thematic funding)는 연구 문화 전반에 걸쳐 위험 회피 성향과 단기적 사고방식을 강화한다는 지적도 있다(Gläser & Laudel, 2016; Jabrane, 2022). 또한 연구비 심사자들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혁신적 연구가 연구비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연구비 지원 가능성이 낮은 연구 아이디어가 전체적인 연구 아젠다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Kayrooz et al., 2007). 더 나아가 상업성이 높은 응용 분야 연구를 선호함에 따라 순수 학문과 인문사회학문 등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Ma(2023)는 연구비와 시장 중심의 압력이 연구 의제를 '핫 이슈'나 주류 방법론으

로 편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생적으로 발전하거나 공동체에서 출현한 비주류적 학술 활동을 주변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문 분야로 보면, 연구비가 STEM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학)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는 학문 간 격차(epistemic inequalities)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Huang & Huang, 2018; Yan et al., 2018).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연구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Ashcroft와 McIvor(2000)는 문헌정보학이 STEM 분야에 비해 상업적 가치와 연구비 경쟁력이 낮다고 하였다. Zhao(2010)는 문헌정보학 내에서도 연구비가 연구 주제를 기술 중심이나 시스템 지향적인 분야(예: 정보 검색)로 편향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해 이론적이고 비판적인 탐구 같은 기초 연구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Yoon et al.(2025)은 Web of Science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논문 분석을 통해, 연구비 지원 논문의 주제, 언어, 지역적 다양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연구비 지원 논문의 메가 상업출판사 학술지를 통한 출판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연구비가 메가 상업 출판사의 APC(Article Processing Charge)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였다.

연구비는 연구자에게 연구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비 수주는 연구자의 채용, 승진, 정년심사 등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한다.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비 집행을 통해 국가적 연구력 강화와 필요한 연구분야 육성에 기여한

다. 더 나아가, 연구비는 연구 환경 및 학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북미·유럽 지역은 Plan S, Nelson Memo 등 정책을 통해 연구비 수주 연구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 출판을 의무화함으로써, 오픈 액세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연구비 수주 과정에서 자국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의무화함으로써 자국의 학술커뮤니티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Xu, 2020). 따라서, 연구비 지원이 학술커뮤니티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2025년 3월 21일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먼저, KCI에서 '복합학' 중 '문헌정보학'에 해당하는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1,181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KCI 등재 및 KCI 우수등재 학술지 논문으로 범위를 한정된 결과 9,702건이 추출되었다. 이후, 비정규 논문, 정정 논문, 비공개 논문을 제외하였고, 문헌정보학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융합학회에서 발행되는 '융합정보지'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 시점이 연초이므로 2025년 출판 논문이 7건에 불과하여, 분석 데이터의 범위는 2024년 출판 논문까지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7,456건의 논문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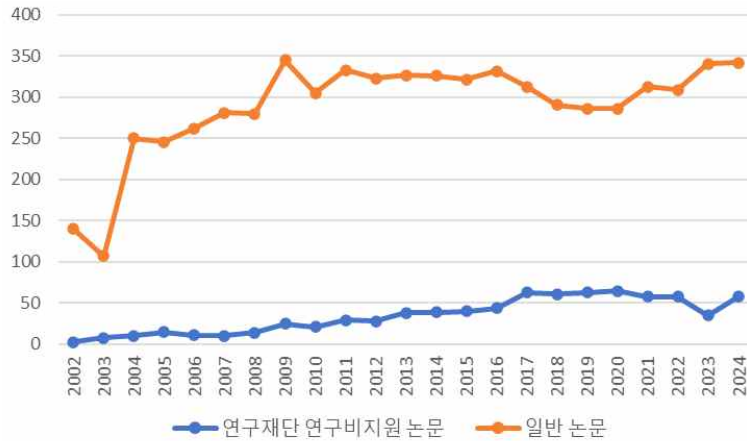
이 7,456건의 논문 중 '재단과제'로 분류된

796건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 데이터셋으로 정의하였으며, 나머지 6,660건은 '일반 논문' 데이터셋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비 지원 논문은 '재단과제'로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 논문'에는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 뿐만 아니라 대학(교내연구비) 및 기타 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지원을 받은 논문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분석은 학술지명, 저자수, 참고문헌수, 인용된 총 횟수, 저자키워드, (학술지) 주제분야 등 KCI 데이터셋에서 추출 가능한 항목을 통해 진행되었다. 다만, 저자수는 데이터셋의 저자명 항목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4. 결과 분석

4.1 논문의 양적 변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과 일반 논문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전체 분석 기간(2002~2024년) 동안 연구재단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이 연도별로 다소간 등락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표 1>은 분석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특성을 보여준다. 시기 구분에 따라 분석 결과와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기별로 동일한 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분석시기(23년)를 동일한 기간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논문 편수가 가장 적은 첫 시기의 기간을 9년으로, 나머지 두 기간



〈그림 1〉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양적 변화 추이

〈표 1〉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시기별 논문 수 및 비율 변화

구분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			일반 논문			합계	
	논문수	비율(%)	연평균 논문수	논문수	비율(%)	연평균 논문수	논문수	연평균 논문수
2002-2010 (9년)	117	5.02	13.00	2216	94.98	246.22	2333	259.22
2011-2017 (7년)	281	10.99	40.14	2276	89.01	325.14	2557	365.29
2018-2024 (7년)	398	15.51	56.86	2168	84.49	309.71	2566	366.57

을 각각 7년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재단 지원 논문의 연평균 게재 수는 첫 번째 시기에는 13편이었으나, 두 번째 시기에는 40.14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세 번째 시기에는 56.86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 논문의 연평균 게재 수는 첫 번째 시기에서 두 번째 시기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세 번째 시기에는 다소 감소하여 연구재단 지원 논문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시기별 연구재단 지원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구재단 지원 논문이 전체 논문의 약 5.02%를 차지했으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10.9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기간인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15.51%로 더욱 높아졌다.

4.2 저자 수, 참고문헌 수, 인용 횟수

〈표 2〉는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평균 저자 수, 평균 참고문헌 수, 평균 인용 횟수를 시기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연구비 지원 논문이 일반 논문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평균 저자 수의 경우, 연구비 지원 논문은 2002년-2010년 1.44명에서 2018년-2024년 2.17명으로 증가하여 공동연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 논문 역시 같은 기간 1.47명에서 1.8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연구비 지원 논문의 증가폭이 더 컸다. 평균 참고문헌 수 역시 연구비 지원 논문이 일반 논문보다 일관되게 많았고, 평균 인용 횟수 또한 연구비 지원 논문이 전반

<표 2>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평균 저자 수, 참고문헌 수, 인용 횟수 비교

구분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	일반 논문
평균 저자 수		
2002-2010	1.44	1.47
2011-2017	1.98	1.64
2018-2024	2.17	1.85
평균 참고문헌 수		
2002-2010	21.85	17.79
2011-2017	29.19	25.83
2018-2024	30.34	27.61
평균 인용 횟수*		
2002-2010	8.59	7.24
2011-2017	10.33	6.71
2018-2024	3.13	2.39

* 평균 인용 횟수의 경우, 출판 시기가 오래된 논문일수록 인용이 누적되어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표는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용 횟수에 대한 정규화 절차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

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논문의 공동연구 활성화, 문헌 활용, 인용 영향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4.3 학술지 및 학술지 주제분야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학술지별 게재 현황을 비교한 결과(〈표 3〉 참조), 두 유형의 논문 모두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가 주요 게재처로 나타났다. 이 세 학술지는 전체 연구재단 지원 논문의 55.15%, 일반 논문의 58.16%를 수용하는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연구비 지원 논문에서는 ‘정보관리학회지’의 비중이 2002년-2010년 20.51%에서 2018년-2024년 24.62%로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반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29.91%에서 13.07%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5.64%에서 12.06%로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등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에 대한 연구비 지원 논문의 게재 비율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의 경우, 2002년-2010년에는 연구비 지원 논문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했으나, 2011년-2017년과 2018년-2024년에는 각각 1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비 지원 논문은 또한 ‘Science Editing’, ‘IJKCDT’, ‘JISTAP’ 등 비교적 신생이거나 국제적 성격이 강한 학술지에도 일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등에 편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시기별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KCI데이터셋은 학술지 주제분야를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보존’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표 3〉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학술지별 분포

학술지명 (창간년도: KCI주제분야)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						일반 논문						총합			
	2002-2010		2011-2017		2018-2024		2002-2010		2011-2017		2018-2024		합계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999: 문헌정보학)	30	25.64	66	23.49	48	12.06	144	18.09	441	19.38	375	17.30	1383	20.77	1527	20.4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0: 문헌정보학)	35	29.91	51	18.15	52	13.07	138	17.34	428	18.80	396	18.27	1378	20.69	1516	20.33
정보관리학회지 (1984: 문헌정보학)	24	20.51	35	12.46	98	24.62	157	19.72	348	15.29	264	12.18	1112	16.70	1269	17.0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72: 문헌정보학)	11	9.40	41	14.59	42	10.55	94	11.81	374	16.43	310	14.30	907	13.62	1001	13.43
서지학연구 (1986: 문헌정보학)	15	12.82	22	7.83	21	5.28	58	7.29	313	13.75	252	11.62	821	12.33	879	11.7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1: 기록관리/보존)	0	0.00	27	9.61	45	11.31	72	9.05	174	7.64	204	9.41	416	6.25	488	6.55
기록학연구 (2000: 문헌정보학)*	2	1.71	31	11.03	39	9.80	72	9.05	168	7.38	161	7.43	407	6.11	479	6.42
IJKCDT (2011: 문헌정보학)	0	0.00	1	0.36	26	6.53	27	3.39	30	1.32	133	6.13	163	2.45	190	2.55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2018: 기록관리/보존)	0	0.00	0	0.00	12	3.02	12	1.51	0	0.00	35	1.61	35	0.53	47	0.63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2010: 기록관리/보존)	0	0.00	0	0.00	1	0.25	1	0.13	0	0.00	38	1.75	38	0.57	39	0.52
Science Editing (2014: 문헌정보학 일반)	0	0.00	0	0.00	12	3.02	12	1.51	0	0.00	0	0.00	0	0.00	12	0.16
JISTAP (1963/2013: 문헌정보학)	0	0.00	7	2.49	1	0.25	8	1.01	0	0.00	0	0.00	0	0.00	8	0.11
근대서지 (2010: 기타문헌정보학)	0	0.00	0	0.00	1	0.25	1	0.13	0	0.00	0	0.00	0	0.00	1	0.01
합계	117	100.00	281	100.00	398	100.00	796	100.00	2276	100.00	2168	100.00	6660	100.00	7456	100.00

IJKCDT: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JISTAP: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 '기록학연구'는 KCI주제분야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기록관리/보존이 적절하다 여겨져, 향후 분석에서는 기록관리/보존으로 분류하였다.

고 있다. 학술지 주제분야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표 4〉 참조), 기록관리/보존 분야에서의 연구비 지원 논문의 확장 경향이 나타난다. 2002년-2010년에는 연구재단 지원 논문이 모두 문헌정보학 분야에 속했으나, 2011년-2017년에는 기록관리/보존 분야가 9.61%로 나타났고, 2018년-2024년에는 14.57%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기록관리/보존 분야 학회지의 창간년이 전통적인 문헌정보학회지 창간년에 비해 늦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 기간 일반 논문에서의 기록관리/보존 분야의 비율이 1.71%에서 7.64%, 12.78%로 증가했으나, 연구비 지원 논문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은 기록관리/보존 분야의 연구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기록관리/보존 분야 논문 중 연구재단 지원 논문 비율은 10.68%로, 일반 논문의 7.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4 키워드 분석

〈표 5〉는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저자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그룹 모두

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도서관 유형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도서관’, ‘사서’, ‘사서교사’ 등 전통적인 문헌정보학의 주요 주제들도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록관리’, ‘기록정보서비스’, ‘메타데이터’, ‘네트워크분석’, ‘연구동향’ 등 다양한 키워드가 양 그룹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상위 키워드의 구성에서 두 그룹 간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에서는 ‘토픽모델링’, ‘텍스트마이닝’, ‘소셜미디어’ 등 정량적 데이터 분석 기반의 키워드와, ‘기록’, ‘기록관리’, ‘아카이브’, ‘로컬리티기록화’, ‘참여형아카이브’ 등 기록학 및 지역기반 아카이브 관련 키워드, 그리고 ‘정보요구’, ‘정보행태’ 등 정보행위연구 관련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 논문에서는 ‘독서교육’,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교육’, ‘도서관경영’, ‘도서관정책’, ‘정보서비스’, ‘도서관서비스’ 등 실무 중심의 전통적인 주제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에서 각 시기별 상위 10개 저자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시기별 분석에서도

〈표 4〉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학술지 주제분야별 분포

구분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						일반 논문					
	기록관리/보존		문헌정보학*		합계		기록관리/보존		문헌정보학		합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2002-2010	0	0.00	117	100.00	117	100.00	38	1.71	2178	98.29	2216	100.00
2011-2017	27	9.61	254	90.39	281	100.00	174	7.64	2102	92.36	2276	100.00
2018-2024	58	14.57	340	85.43	398	100.00	277	12.78	1891	87.22	2168	100.00
합계	85	10.68	711	89.32	796	100.00	489	7.34	6171	92.66	6660	100.00

* 주제분야가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일반’, ‘기타문헌정보학’로 표기된 학술지

〈표 5〉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상위 20 저자 키워드

순위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			순위	일반 논문				
	키워드	빈도	%*		키워드	빈도	%*		
1	공공도서관	53	1.23	1	공공도서관	619	1.77		
2	대학도서관	35	0.81	2	대학도서관	330	0.94		
3	토픽모델링	20	0.46	3	학교도서관	299	0.85		
4	정보요구	18	0.42	4	사서교사	138	0.39		
4	학교도서관	18	0.42	5	메타데이터	100	0.29		
6	메타데이터	17	0.39	6	도서관	99	0.28		
7	문헌정보학	16	0.37	7	정보서비스	91	0.26		
7	연구동향	16	0.37	8	독서교육	89	0.25		
9	텍스트마이닝	15	0.35	9	연구동향	87	0.25		
10	네트워크분석	14	0.32	10	사서	86	0.25		
10	기록	14	0.32	10	문헌정보학	86	0.25		
10	도서관	14	0.32	12	기록관리	78	0.22		
13	아카이브	13	0.30	13	도서관서비스	72	0.21		
14	사서교사	12	0.28	13	기록정보서비스	72	0.21		
14	사서	12	0.28	15	정보활용능력	71	0.20		
14	정보행태	12	0.28	16	네트워크분석	70	0.20		
16	로컬리티기록화	10	0.23	17	도서관정책	68	0.19		
16	소셜미디어	10	0.23	17	디지털도서관	65	0.19		
17	내용분석	9	0.21	19	이용자연구	64	0.18		
17	기록정보서비스	9	0.21	20	정보활용교육	63	0.18		
17	온톨로지	9	0.21	20	도서관경영	63	0.18		
17	기록관리	9	0.21						
17	연구데이터	9	0.21						
합계			364	8.42	합계			2710	7.73

* 전체 키워드 출현 빈도 중 해당 키워드 비율

〈표 6〉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의 시기별 상위 10 키워드

시기	순위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			순위	일반 논문		
		키워드	빈도	%*		키워드	빈도	%*
2002-2010	1	공공도서관	9	1.30	1	공공도서관	189	1.72
	2	대학도서관	7	1.01	2	대학도서관	145	1.32
	2	정보행태	7	1.01	3	학교도서관	101	0.92
	4	디지털도서관	6	0.86	4	메타데이터	53	0.48
	5	학교도서관	5	0.72	5	디지털도서관	46	0.42
	5	정보요구	5	0.72	6	사서교사	37	0.34
	5	사서교사	5	0.72	6	정보서비스	37	0.34
	8	사서	4	0.58	8	온톨로지	32	0.29
	8	정보격차	4	0.58	9	도서관경영	31	0.28
	8	정보환경	4	0.58	9	정보활용능력	31	0.28
8	재일한인	4	0.58	9	독서자료	31	0.28	

시기	순위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			순위	일반 논문		
		키워드	빈도	%*		키워드	빈도	%*
	8	다문화사회	4	0.58				
	8	이주노동자	4	0.58				
	8	정보소외	4	0.58				
	8	질적연구	4	0.58				
		계		76	10.95	계	733	6.66
2011-2017	1	공공도서관	20	1.28	1	공공도서관	199	1.62
	2	대학교서관	17	1.09	2	학교도서관	99	0.81
	3	로컬리티기록화	10	0.64	2	대학교서관	99	0.81
	4	로컬리티	8	0.51	4	사서교사	45	0.37
	5	재난안전정보	7	0.45	5	문헌정보학	42	0.34
	5	참여형아카이브	7	0.45	6	연구동향	36	0.29
	7	도서관	6	0.39	7	독서교육	35	0.28
	7	메타데이터	6	0.39	8	정보서비스	33	0.27
	7	부산	6	0.39	9	사서	30	0.24
	10	연구동향	5	0.32	10	네트워크분석	29	0.24
	10	네트워크분석	5	0.32	10	기록정보서비스	29	0.24
	10	집단기억	5	0.32				
	10	사회적기억	5	0.32				
	10	디지털아카이브	5	0.32				
	10	다문화	5	0.32				
	10	도큐멘테이션전략	5	0.32				
	10	다문화서비스	5	0.32				
	10	장애인서비스	5	0.32				
	10	온톨로지	5	0.32				
	10	한국학술지인용색인	5	0.32				
	10	트위터	5	0.32				
	10	토픽모델링	5	0.32				
	10	기록화전략	5	0.32				
	10	공동체아카이브	5	0.32				
	계		162	10.40	계	676	5.50	
2018-2023	1	공공도서관	24	1.16	1	공공도서관	231	1.96
	2	토픽모델링	15	0.72	2	학교도서관	99	0.84
	3	학교도서관	12	0.58	3	대학교서관	86	0.73
	4	정보요구	11	0.53	4	사서교사	56	0.48
	4	대학교서관	11	0.53	5	도서관	43	0.37
	4	텍스트마이닝	11	0.53	6	연구동향	37	0.31
	4	연구동향	11	0.53	6	네트워크분석	37	0.31
	8	문헌정보학	10	0.48	8	연구데이터	36	0.31
	8	기록	10	0.48	9	사서	33	0.28
	10	아카이브	9	0.43	10	도서관서비스	30	0.25
	10	소셜미디어	9	0.43	10	기록정보서비스	30	0.25
		계		133	6.42	계	718	6.10

* 전체 키워드 출현 빈도 중 해당 키워드 비율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도서관 유형 중심의 키워드가 양쪽 논문군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 유형별 연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2010년 시기에는 연구재단 지원 논문에서 ‘정보행태’, ‘정보요구’, ‘정보격차’, ‘정보소외’,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재일한인’ 등 정보 접근의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를 다루는 키워드가 다수 상위권에 나타났다. 이는 연구비 지원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같은 시기 일반 논문에서는 ‘정보서비스’, ‘도서관경영’, ‘정보활용능력’, ‘독서치료’ 등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운영 관련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2011년-2017년에는 연구재단 지원 논문에서 ‘로컬리티기록화’, ‘로컬리티’, ‘참여형아카이브’, ‘재난안전정보’, ‘디지털아카이브’, ‘기록화전략’, ‘공동체아카이브’ 등 지역 기반 기록학 및 아카이브 관련 키워드가 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이 시기에 사회 현상과 정보 기록을 결합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 논문에서는 ‘사서’, ‘사서교사’, ‘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독서교육’ 등 도서관 실무 및 서비스 중심의 키워드가 계속해서 주요하게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에서 ‘연구동향’과 ‘네트워크분석’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상위권에 등장한 점은,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 연구가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2018년-2024년에는 연구재단 지원 논문에서 ‘토픽모델링’, ‘텍스트마이닝’ 등 데이터 기반 정량적 분석 방법과, ‘아카이브’, ‘기록’ 등 기록

학 관련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 논문에서는 ‘도서관’, ‘사서’, ‘사서교사’, ‘도서관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등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별 분석을 통해, 연구재단 지원 논문은 지역 기반 기록학, 사회적 정보 불평등, 데이터 기반 연구 등 보다 전략적·분석적이고 기술 중심의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반 논문은 전통적인 도서관 실무와 서비스 중심의 주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논의와 결론

5.1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논문 중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과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이하 ‘일반 논문’)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 모두에서 논문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났고, 특히 연구비 지원 논문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의 양적 성장은 해외의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보고되어 왔는데, 연구 주제의 세분화 및 전문화(Figuerola et al., 2017), 타 학문 분야 연구자들의 유입과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Chang, 2018; Vakkari et al., 2022), 그리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 영역의 확장(Panahi et al., 2023) 등을 그 요인으로 꼽고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논문 수와 피인용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문 분

야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하였다(최은주, 양기덕, 2018). 또한, 국내 주요 학술지의 공저 논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가 연구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도 하였다(김현정, 2021). 이러한 문헌정보학의 연구 논문 증가 요인과 더불어, 장연미와 이재윤(2024)이 언급한 바와 같이 BK21 사업 등 정부의 연구 지원 정책 확대가 연구비 지원 논문의 증가를 견인하는 직접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비 지원 논문은 일반 논문에 비해 더 높은 인용률과 공동연구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비가 연구 생산성, 인용률, 그리고 공동연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Alvarez-Bornstein & Bordons, 2021; Corsini & Pezzoni, 2023; Yan et al., 2018). 문헌정보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도 연구비 지원 논문이 더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Ali & Nazim, 2023; Zhao, 2010). 일반적으로 연구비 지원 논문이 높은 인용률을 보인다는 점은 연구비 지원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연구비 지원 연구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Thelwall et al.(2023)이 주장했듯이 연구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비는 다수의 저자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연구팀의 형성을 촉진하며, 이는 논문의 확산과 학문적 영향력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n et al., 2021; Yan et

al., 2018). 이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 정책의 방향과 함께, 대규모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학술지에 나타난 공저자 특성은 연구비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재윤(2023)은 석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한 논문 투고를 받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의 경우, 2인 저자 논문의 비중이 다른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 하였다.

셋째, 연구비 지원 논문과 일반 논문 간의 주제적 차이도 확인되었다.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도서관 관종별 연구는 두 집단 모두의 주요 주제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논문에서는 시기별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전략적 연구주제가 두드러졌는데, 2002년-2010년에는 정보 접근의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정보행태', '정보요구', '정보격차', '정보소외',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재일한인' 등), 2011년-2017년에는 지역 기반 기록학 및 사회적 약자('로컬리티 기록화', '참여형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다문화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등), 2018년-2024년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 및 기록학 관련 주제('토픽 모델링', '텍스트 마이닝', '아카이브', '기록' 등)가 상위에 등장했다. 반면, 일반 논문은 도서관 실무와 서비스 등 전통적 주제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결과는 해외의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비 지원 연구 특성이 기술 및 응용 연구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과는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비

지원 연구를 분석한 Zhao(2010)와 Yoon et al. (2025)은 기술 중심 연구에 연구비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전통적 주제를 다루는 연구는 연구비 비수혜 논문임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Yoon et al.(2025)은 문헌정보학의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주제가 연구비 지원 기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Web of Science를 주로 사용하는 해외 데이터셋은 헬스 인포메틱스, 경영정보시스템 등 학제적 학술지의 비중이 크고, 컴퓨터 사이언스 및 경영정보 분야가 강조되는 경향(Huang et al., 2019), 그리고 문헌정보학의 학제적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점(Vakkari et al., 2022)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5.2 제언 및 결론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연구비 정책이 학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비는 단순히 연구자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장연미와 이재윤(2024)은 국내 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해 교내 연구비 지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BK+ 사업 등 국가 차원의 대형 연구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논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연구비 지원이 교내 지원보다 학술대회 활성화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미국과 유럽은 공적 연

구비로 수행된 연구 출판물의 오픈 액세스의 무화를 통해 오픈 액세스 학술지 확산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연구비 선정과정에서 자국 학술지 논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국 학술 커뮤니티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Xu, 2020). 이러한 사례들은 연구비 정책이 학술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비 정책은 연구의 자율성(research autonomy: 연구 주제 선정, 방법론 설계, 결과 확산 등에서의 자유)과 학문적 주권(academic sovereignty)에도 영향을 미친다(Gläser & Laudel, 2016; Jansen, 2021). 즉, 시장 논리, 실용성 강조, 인용지수 및 SSCI/SCI 중심주의 등이 연구비 선정과 연구수행에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주제와 방법이 선호되고, 연구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저해되고, 도전적인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을 시도하는 연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비가 학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구비가 연구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지, 연구자들의 주제 선택과 방법론, 연구 동기에 타협을 유도하지 않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Fortunato et al., 2018). 특히 인문사회학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와는 차별되는 연구 특성을 연구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실용성과 무관하더라도 학문적 기반을 형성하거나, 현재는 비주류에 속하지만 장기적으로 학문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비 정보를 포함한 개

방형 연구 정보에 대한 논의와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중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국내 문헌정보학자들 중에서 국내 타 연구비나 해외 연구비를 수주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요인 분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비지원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비 정보 데이터셋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개방형 연구정보(Open Research Information)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 on Open Research Information, 2024)에 의하면, 개방형 연구정보는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를 넘어서, 연구자, 연구비, 프로젝트, 성과 등 연구생애 주기 전반(research lifecycle)에 걸친 연

구정보를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기존의 WoS, Scopus와 같은 상업적이고 폐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연구자, 기관, 정책입안자, 시민 등)가 정보를 검증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오픈 사이언스 실현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소르본 대학 및 CWTS 라이덴 랭킹의 OpenAlex 활용 사례 등은 개방형 연구정보에 관한 실천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예이다. 바르셀로나 선언에서는 특히 연구비 정보 메타데이터 개방을 개방형 연구정보의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Thelwall et al.(2023)의 연구비 정보 기록 영역에서도 주장되었던 바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개방형 연구정보 및 연구비 정보 개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현정 (2021). 문헌정보학 분야의 공동연구 추이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2002-202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2), 149-169.
<http://doi.org/10.14699/kbiblia.2021.32.2.149>
- 이재윤 (2023). 저자집단 분석을 통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술커뮤니케이션 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409-434. <http://doi.org/10.4275/KSLIS.2023.57.2.409>
- 장연미, 이재윤 (2024).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사사표기 유형 구분과 계량서지적 특성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1), 313-338. <http://doi.org/10.3743/KOSIM.2024.41.1.313>

- 최은주, 양기덕 (2018).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연구업적의 계량적 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1(1), 55-86. <http://doi.org/10.22417/DPSS.2018.4.11.1.55>
- Ali, A. & Nazim, M. (2023). Does funded research have a greater scholarly impact? A study of funded and non-funded research published in high-impac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Global Knowledge, Memory and Communication*, 74(3/4), 1295-1318. <https://doi.org/10.1108/GKMC-03-2023-0102>
- Álvarez-Bornstein, B. & Bordons, M. (2021). Is funding related to higher research impact? Exploring its relationship and the mediating role of collaboration in several disciplines. *Journal of Informetrics*, 15(1), 101102. <https://doi.org/10.1016/j.joi.2020.101102>
- Ashcroft, L. & McIvor, S. (2000). LIS research and publishing: The forces of change. *Library Review*, 49(9), 461-469. <https://doi.org/10.1093/reseval/rvaa038>
- Barcelona Declaration on Open Research Information (2024, April). Barcelona Declaration on Open Research Information. Available: <https://barcelona-declaration.org/>
- Chang, Y. W. (2018). Examining the interdisciplinari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based on LIS articles contributed by non-LIS authors. *Scientometrics*, 116, 1589-1613. <https://doi.org/10.1007/s11192-018-2822-7>
- Coccia, M. (2022). Scientific laws of research funding to support citations and diffusion of knowledge in life science. *Scientometrics*, 127, 1599-1621. <https://doi.org/10.1007/s11192-021-04205-2>
- Corsini, A. & Pezzoni, M. (2023). Does grant funding foster research impact? Evidence from France. *Journal of Informetrics*, 17(4), 101448. <https://doi.org/10.1016/j.joi.2023.101448>
- Figuerola, C. G., García-Marco, F. J., & Pinto, M. (2017). Mapping the evolu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78-2014) using topic modeling. *Scientometrics*, 112, 1507-1535. <https://doi.org/10.1007/s11192-017-2432-9>
- Fortunato, S., Bergstrom, C., Börner, K., Evans, J., Helbing, D., Milojević, S., Petersen, A., Radicchi, F., Sinatra, R., Uzzi, B., Vespignani, A., Waltman, L., Wang, D. & Barabási, A. (2018). Science of science. *Science*, 359, eaao0185. <https://doi.org/10.1126/science.aao0185>
- Gläser, J. & Laudel, G. (2016). Governing science: How science policy shapes research content.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Archives Européennes de sociologie*, 57(1), 117-168.
- Huang, M. H. & Huang, M. J. (2018). An analysis of global research funding from subject field and funding agencies perspectives in the G9 countries. *Scientometrics*, 115(2), 833-847. <https://doi.org/10.1007/s11192-018-2677-y>
- Huang, M. H., Shaw, W. C., & Lin, C. S. (2019). One category, two communities: Subfield

- differences in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 in Journal Citation Reports. *Scientometrics*, 119(2), 1059-1079. <https://doi.org/10.1007/s11192-019-03074-3>
- Jabrane, L. (2022). Individual excellence funding: Effects on research autonomy and the creation of protected spac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9(1), 1-9. <https://doi.org/10.1057/s41599-022-01404-0>
- Jansen, D. (2021, October 18). Safeguarding academic and digital sovereignty: A model for action. *Expert Voices*. Available: <https://www.eua.eu/our-work/expert-voices.html#experts2632>
- Kayrooz, C., Akerlind, G., & Tight, M. (2007). Autonomy in Social Science Research. In Kayrooz, C., Akerlind, G. S., & Tight, M. Eds. *Autonomy in Social Science Research: The View from United Kingdom and Australian Universities*, 1, 3-27. Oxford: Elsevier.
- Ma, L. (2023). Information, platformized.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4(2), 273-282. <https://doi.org/10.1002/asi.24713>
- Panahi, S., Ghaffari, S., & Lotfi, M. (2023). A bibliometric analysis in Web of Science publications for obtaining global research trends and hot topic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nd Management*, 21(4), 311-329. <https://doi.org/10.22034/ijism.2023.1977944.0>
- Ross-Hellauer, T., Tennant, J. P., Banelytė, V., Gorogh, E., Luzi, D., Kraker, P., Pisacane, L., Ruggieri, R., Sifacaki, E., & Vignoli, M. (2020). Ten simple rules for innovative dissemination of research. *PLoS Computational Biology*, 16(4), e1007704. <https://doi.org/10.1371/journal.pcbi.1007704>
- Shibayama, S. & Baba, Y. (2015). Impact-oriented science policies and scientific publication practices: The case of life sciences in Japan. *Research Policy*, 44(4), 936-950. <https://doi.org/10.1016/j.respol.2015.01.012>
- Sun, Y., Livan, G., Ma, A., & Latora, V. (2021). Interdisciplinary researchers attain better long-term funding performance. *Communications Physics*, 4, 263. <https://doi.org/10.1038/s42005-021-00769-z>
- Thelwall, M., Simrick, S., Viney, I., & Van den Besselaar, P. (2023). What is research funding, how does it influence research, and how is it recorded? Key dimensions of variation. *Scientometrics*, 128(11), 6085-6106. <https://doi.org/10.1007/s11192-023-04836-w>
- Vakkari, P., Chang, Y. W., & Järvelin, K. (2022). Largest contribution to LIS by external disciplines as measu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rticles. *Scientometrics*, 127(8), 4499-4522. <https://doi.org/10.1007/s11192-022-04452-0>

- Xu, J. (2020, March 3). Guest post - How China's new policy may change researchers' publishing behavior. The Scholarly Kitchen. Available: <https://scholarlykitchen.sspnet.org/2020/03/03/guest-post-how-chinas-new-policy-may-change-researchers-publishing-behavior/>
- Yan, E., Wu, C., & Song, M. (2018). The funding factor: A cross-disciplinary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search funding and citation impact. *Scientometrics*, 115, 369-384. <https://doi.org/10.1007/s11192-017-2583-8>
- Yoon, J., Andrews, J., Seo, S., & Chung, E. (2025). Landscapes of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 research: Comparing funded and non-funded research from 2008 to 2023. *Journal of Documentation*, 81(5-6), 1509-1530. <https://doi.org/10.1108/JD-07-2025-0190>
- Zhao, D. (2010).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grant-funded research: A case study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Scientometrics*, 84, 293-306. <https://doi.org/10.1007/s11192-010-0191-y>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i, Eun-Joo & Yang, Ki-Duk (2018). A bibliometric analy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2001-2016.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1(1), 55-86. <http://doi.org/10.22417/DPSS.2018.4.11.1.55>
- Jang, Yeonmi & Lee, Jae Yun (2024). Acknowledgement types and bibliometric characterist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313-338. <http://doi.org/10.3743/KOSIM.2024.41.1.313>
- Kim, Hyunjung (2021). An investigation of research collaboration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through co-authorship relations, 2002-2020.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2), 149-169. <http://doi.org/10.14699/kbiblia.2021.32.2.149>
- Lee, Jae Yun (2023). A study on scholarly communication trend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ies through author group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2), 409-434. <http://doi.org/10.4275/KSLIS.2023.57.2.409>